

북한에서 무용가 최승희의 복권양상과 그 정치적 함의

박은혜*

I. 서론	IV. 결론
II. 북한 내 최승희 복권 양상	참고문헌
III. 최승희 복권의 정치적 함의	Abstract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승희(1911~1969년)는 민족적 예술에 토대를 둔 근대적 춤으로 한국, 일본, 미국, 중남미, 중국, 북한, 소련 등에서 활약했던 세계적 무용가이다. 그는 신무용가, 신여성, 한류의 원조, 반도의 무희¹⁾, 민족무용가, 친일무용가 등 수많은 수식어로 불리며 특히 한반도에서는 “남북한에서 신무용의 도입과 전개, 기본체계 정립에 독보적인 업적(20세기 북한예술문화사전)”²⁾을 남긴 인물로 평가된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그의 행적과 예술적 성과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연구대상이기도 하다(유미희, 2018). 이처럼 최승희를 설명하는 여러 수식어는 그의 업적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한편으로 삶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최승희는 신무용과 북한무용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자 민족적 예술가로 여겨지고(한경자, 2008; 김채원, 2010), 동양적 춤을 기반으로 서양화 및 현대화를 시도한 예술가로도 높이 평가된다(이애순, 2002; 한경자 2006; 이영란, 2015). 반면 반민족적 친일행적이 확인되에도(조경아, 2024) 사정상 이러한 행위가 불가피했다고 바라보는 견해 또한 존재한다.³⁾ 무엇보다 남한에서는 월북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북한에서는 숙청되었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에서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다. 이후에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양측은 최승희를 복권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그의 삶과 예술의 다층성이 사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이론과 객원교수, eh5800@naver.com

1) ‘반도의 무희’는 최승희의 별명으로 여겨지곤 한다. 이는 1936년 최승희가 주연으로 출연하여 그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일본제작 영화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 영화는 그의 인기에 힘입어 일본에서 개봉되어 4년간 장기 상영되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반도의 무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4353, 2025, 11, 01>).

2) 북한대학원대학교, “최승희”, 『20세기 북한예술문화사전』, <http://www.nks.ac.kr/Word/View.aspx?id=2165, 2026, 01, 03>.

3) 대표적으로 정병호(1995)의 『춤추는 최승희』(뿌리깊은 나무)가 있다(조경아, 2024, p. 32).

본 연구는 최승희의 삶과 예술이 지닌 복잡성 중 하나인 북한에서의 복권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최승희는 월북 후 북한에서 공연 및 교육활동을 통해 조선무용의 기초를 잡았고 다른 나라와도 교류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1958년 남편 안막이 북한당국으로부터 처벌받은 후 당으로부터 견제를 받다가 1960년대 이후 점차 공식무대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성기숙, 2002; 한경자, 2006). 이로 인해 최승희는 북한에서 한동안 언급조차 하면 안 되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탈북민 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일부만이 최승희의 이름을 들어보았으며 정확히 아는 경우도 드물었다(김석향, 2003, p.24)는 한 조사결과는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즈음에 일본과 국내 언론 등을 통해 북한에서 그에 대한 복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황태훈, 2009). 이에 따르면 2009년 북한에서는 월북 이후 그의 활동, 업적 등에 대해 활발하게 조명하고 있었다. 특히 그간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최승희의 정확한 사망일자가 그의 새 묘비를 통해 1969년 8월 8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최승희 복권 소식은 국내 무용계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신무용의 선구자이자 한반도 출신의 국제적 무용가인 최승희의 업적을 고려할 때, 그의 마지막 활동 지역인 북한에서의 복권소식은 최승희의 예술적 가치가 북한에서도 재평가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진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북한 내 최승희 복권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미진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최승희에 대한 국내연구는 대체로 그의 사망 이전의 예술적 행적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⁴⁾ 북한 내 최승희 복권을 상세히 파악하는 일은, 그의 예술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에서 최승희 복권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는 최승희의 예술적 가치가 너무나도 강력하여 언제고 복권될 수밖에 없다는 당위론을 경계하면서, 그의 북한 내 복권을 둘러싼 정치적 함의도 살펴보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에서 문화예술은 체제의 우월성을 국내외에 선전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최승희 복권이 단순히 그의 예술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북한이 철저히 지우고자 했던 최승희를 현재에 와서 복권하게 된 정치적 이유에 대해서도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시기적 범위는 김일성 회고록에서 최승희를 긍정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여겨지는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다.

4) 국내에서 출판된 최승희의 평전이나 자서전으로는 강이향(1993)의 『최승희: 생명의 춤 사랑의 춤』(지양사), 정병호(1995)의 『춤추는 최승희』(뿌리깊은 나무), 최승희(2023) 『최승희, 나의 자서전』(청새종이) 등이 있다. 최승희를 신무용과 북한무용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자 민족적 예술가로 간주하거나(한경자, 2008; 김채원, 2010), 동양적 춤을 기반으로 서양화 및 현대화를 시도한 사람으로 다루는 연구도 진행되어왔다(한경자, 2006; 이영란, 2015). 또한 최승희의 반민족 및 친일행위에 대한 연구(조경아, 2024), 그의 국제 활동에 대한 고찰(최용권, 2012; 한경자, 2020; 김연수, 2023; 서승임, 2023) 등도 수행되었다. 최승희 춤의 다양한 면을 다루는 단행본도 국내에서 여럿 출판되었는데, 이에순(2002)의 『최승희 무용예술연구: 20세기 예술문화와의 관계 속에서』(국학자료원), 유미희(2006) 『20세기 마지막 페미니스트 최승희』(민속원), 김채원(2008)의 『최승희 춤: 계승과 변용』(민속원), 이영란(2014)의 『최승희 무용예술 사상』(민속원), 이진아(2021)의 『네이션과 무용』(도서출판 선인) 등이 그것이다.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으로, 1990년대 이후부터 북한 내 최승희 관련 소식을 다루고 있는 북한 문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자료접근이 어렵고 현장방문을 통한 자료수집이나 관계자 면담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문헌분석은 북한연구에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연구방법이다.⁵⁾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북한문헌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가 소장한 단행본, 신문기사, 잡지 기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수집하였다. 동 센터의 소장자료 DB에서 ‘최승희’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1차 자료를 목록화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북한자료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자료를 열람하였다. 1차 자료에서 발견된 단서를 토대로 관련 자료를 추적했으며 새로운 정보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조사를 확장해나갔다. 그 결과 최승희 복권의 신호탄이 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5』(1994)를 비롯, 최승희의 일대기를 서술하고 있는 『조선사회과학학술집 547: 민속학 편 - 민속한연구논문집11』(2010), 최승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태양의 품에서 영생하는 무용가』(2012), 종합문예선집인 『아버지의 유산』(2015)의 단행본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신문과 잡지에서 『로동신문』 3건, 『통일신보』 3건, 『민주조선』 3건, 『문학신문』 1건, 『조선예술』 4건, 『예술교육』 2건, 『민족문화유산』 1건의 최승희 관련 문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작권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복사하였으며 그 외에는 열람하며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출판물에 대한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북한의 문예노선을 지지하고 홍보한다고 알려져 있는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⁶⁾ 홈페이지에서의 최승희 관련 자료도 살펴보았다. 더불어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DVD자료인 「(조선기록)뚜렷한 자욱, 빛나는 삶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발행처 및 발행시기 불명)와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에서 2024년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물 「崔承喜 최승희 동방의 무희」도 살펴보았다. 이들 영상은 최승희의 일대기와 북한에서의 복권행사를 담고 있어 앞서 수집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부족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최승희의 북한 내 복권소식을 다룬 국내 미디어인 조선일보, 연합뉴스, 통일뉴스 등의 웹페이지, 2022년까지 북한예술 소식을 실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연감』 북한 부분에서의 최승희 복권 내용도 살펴 정보를 보완하였다.

이상에서 수집한 문헌 및 영상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들을 반복적이며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서 최승희의 복권 양상을 시계열로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북한 내 최승희의 복권양상을 ‘기념행사’, ‘국가적 상징으로의 격상’, ‘역사적 재평가’라는 범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한편 북한연구에 있어 북한에서 생산된 텍스트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들 자료는 체제 선정성이 강한 정치적 텍스트이기에 편향성의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이러한 북한 텍스트의 내재적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정치체제에 있어 대립적 위치에 있는 한국의 공표 자료와 국내 선행 연구물들을 활용하여 교차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정치노선과 문예정책의 정보를 담고 있는 통일부 및 통일연구원의 자료, 보고서와 북한관련 전문학술논문과 서적 그리고 최승희와 주변인물을 다룬 문헌을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권력의 흐름 속에서 최승희 복권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이것

5) 북한연구에서의 “문헌분석은 북한 현지 자료를 근거로 현황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연구(허지숙 외 2017, p.19)”라 할 수 있으며, 허지숙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108편의 북한연구 중 문헌분석은 연구방법의 57%에 달할 정도로(허지숙 외, 2017, p. 18) 압도적인 활용도를 보인다. 이는 북한연구에서 문헌분석이 갖는 방법론적 위상을 잘 보여준다.

6) 1959년 북한의 문예 사상, 작품의 선전, 보급에 노력하는 동시에 재일 조선인 문예 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세계한민족문화대전』. (<https://www.okpedia.kr/Contents/ContentsView?contentsId=GC95200882&localCode=jpn, 2026. 03. 03>)).

이 북한의 정치와 관련되는 바를 ‘김일성 일가 세습통치 정당성의 기제로 활용’,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에 모범이 되는 예술가로 선전’, ‘은폐된 국가폭력’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II. 북한 내 최승희 복권 양상

최승희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가 1960년대 후반 무대와 교육현장에서 사라졌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며, 그 원인을 숙청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후 그의 명성은 북한 내 무용의 공연과 교육 현장은 물론이고 북한 주민 일상에서도 지워진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일가 중심의 세습 독재 체제 내에서 예술가 개인의 위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데다(윤지현 외, 2019) 최승희가 숙청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치는 북한 체제 특성상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숙청 후 약 30여 년이 지난 1994년, 김일성 사망 직전에 출판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5』(김일성, 1994)에서 다음과 같이 최승희가 언급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⁷⁾

“최승희는 조선의 민족무용을 현대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민간무용, 승무, 무당춤, 궁중무용, 기생무용의 무용들을 깊이 파고들어 거기에서 민족적정서가 강하고 우아한 춤가락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현대조선민족무용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김일성, 1994, p. 55).”⁸⁾

이로써 최승희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글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최승희의 숙청은 김일성 중심 체제 확립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추측되곤 하는데(정병호, 1995, p. 345; 성기숙, 2002, p. 133),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승희를 축출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김일성이 직접 명예를 복원시킨 것은 중대한 변화였다. 이후 북한 당국은 다음과 같이 그의 복권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1. 기념행사

가. 2003년 애국열사릉에 안치, 2019년 묘비에서 사망 50주년 추모모임

최승희는 2003년 2월에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안치되었다. 신미리 애국열사릉은 북한의 대표적 국립 묘지로 꼽히며 “항일투쟁·사회주의 건설·통일사업 등의 분야에서 위훈을 세운 공로자들의 묘역”으로 알려져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⁹⁾ 이러한 애국열사릉에 최승희가 안치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예술이 북한에서도 가치있다고 인정되었으며 그가 공식적으로 복권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 때 세워진 최승희 묘비에는 사망일이 1969년 8월 8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동안 그의 최후 행적에 대해 정확히 알

7) 최승희 사후 김일성이 그를 다시 언급했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 김일성 회고록 5권에서(성기숙, 2002, p. 134), 김일성 사후에 출간된 자서전에서(동아일보, 2009. 09. 17) 그러한 글이 등장했다는 의견이 그 예이다. 이러한 의견을 참고하여 이 글에서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방문하여 연구자가 직접 확인한 부분만 제시하였다.

8) 이 글에서 인용한 북한자료의 글들은 원자료의 표기법을 그대로 따른 것임을 밝힌다.

9) 한국학중앙연구원. “신미리 애국열사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6571>, 2025, 12, 23>.

려진 바가 없었기에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는 해당 일자를 실제 사망일로 수용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 최고위층 출신으로 탈북한 황장엽은 이 날이 최승희가 숙청된 날일뿐 사망일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여 (문갑식, 2019) 여전히 의문을 남기기도 했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추후에 여러 자료가 집적된다면 이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리라 본다.

또한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이 2024년에 유튜브에 공유한 영상 「崔承禧 최승희 동방의 무희」에 따르면, 최승희가 애국열사릉에 안치된 후 십 수 년이 흐른 2019년에 그의 추모모임이 개최된 것으로 확인된다. 영상에 출연한 북한의 김일성상 계관인¹⁰⁾ 작가 윤광현은, 2019년에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최승희 사망 50주년을 기념하는 추모모임이 신미리 애국열사릉 최승희 묘역 앞에서 열렸다고 증언하였다.¹¹⁾ 그 외 이 추모모임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만 미루어보더라도 1990년대 김일성이 최승희를 다시 언급한 이후, 김정일과 김정은의 집권기에 이르기까지 최승희를 기념하고자 하는 노력은 정권차원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2009년 소개영상물 TV방영

최승희가 애국열사릉에 안치된 지 6년 후인 2009년 8월 5일에 북한의 조선중앙TV는 「현대 조선민족 무용 발전에 기여한 무용가로 내세워 주시어」라는 제목의 19분 분량 영상물을 방영했다(연합뉴스, 2009. 08. 07; 그림 1 참조). 이 영상은 최승희의 월북 이후의 행적에 주목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각별한 관심 속에 전개된 그의 국내외 작품 활동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최승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전하고 있다(연합뉴스, 2009. 08. 07). 비록 본 연구를 통해서도 이 영상물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이 외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북한의 문화예술 텍스트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글에서 다루는 최승희 복권 관련 내용들과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소개 영상물 방영¹²⁾

북한의 TV채널은 여타 국가와 달리 채널 구성이 매우 제한적이며 국가의 엄격한 검열과 통제가 이루어진다. 다른 미디어에 대한 통제와 감시 또한 철저한 상황에서 북한에서 TV는 체제 선전과 선동의 핵

10) 북한에서는 김일성상과 인민상을 수여한 작가나 작품에 계관칭호가 수여되며(전영선, 2002, pp. 28-32), 김일성상계관인이라 김일성 상의 영예를 간직한 인물이라는 뜻이다.

11) 在日本朝鮮文学芸術家同盟-文芸同 munedong. “崔承禧 최승희 동방의 무희”. <https://youtu.be/S2_esSoRKYs, 2025. 11. 03>.

12) 연합뉴스(2009. 08. 07). “북, 무용가 최승희 업적소개 영상물 방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2801503?sid=100>, 2025. 03. 04>.

십 수단으로 활용된다. 북한에서 1963년 평양방송국으로 개국한 조선중앙TV는 북한을 대표하는 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점하고 있다(권숙도 외, 2023, pp. 313-314). 이러한 조선중앙TV에 최승희 소재 영상물이 방영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예술을 통해 북한문화의 우월성을 홍보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이전의 묘소 이장의 경우 소수의 인원만이 참여하여 파급력이 제한적이었던 이벤트였다면, 조선중앙TV 방영은 미디어로 매개된 형태일지라도 북한 전역의 주민들에게 최승희 무용의 가치를 각인 시킴과 동시에 그녀의 복권을 공식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다. 2011년 최승희 생일 100주년 기념 각종 의식

2011년은 최승희가 탄생한 지 100년이 되던 해로 한국에서도 그를 기념하는 축제, 학술대회, 공연 등이 여럿 개최된 바 있다.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서도 그의 탄생을 기리며 다음과 같은 여러 의식들이 진행되었다.

1) 묘소에 화환 진정 의식

최승희의 100번째 생일인 2011년 11월 24일 오전에는 애국열사릉에 안치된 그의 묘소에 화환 진정 의식이 거행되었다(그림 2 참조). 해당 행사의 내용은 북한의 영상자료 「(조선기록)뚜렷한 자욱, 빛나는 삶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영상은 애국열사릉 묘소에 참배객들이 이 꽃을 들고 입장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어 최승희 묘소 앞에 모인 사람들 중, 한 남성¹³⁾이 추모의 글을 낭독한다. 이후 재일조선무용단 소속 리미남¹⁴⁾의 인터뷰가 이어지는데, 그는 최승희가 남긴 조선의 무용유산 덕분에 일본에서도 조선무용이 꽃피울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로동신문』에 따르면 이 화환증정식에는 “안동춘¹⁵⁾ 문화상, 김병훈¹⁶⁾ 문예총중앙위원회 위원장, 무용예술부문 일군, 창작가, 예술인들, 최승희선생의 유가족과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로동신문, 2011. 11. 25). 북한 문화예술계 및 무용계 주요 인사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 행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그림 2〉 묘소에 화환 진정 의식¹⁷⁾

13) 영상에서 최승희를 고모라고 부르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조카이자 무용가인 최효섭으로 보인다.
 14) 1961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 무용부장, 금강산가극단 부단장을 지낸 재일 무용계 권위자이다(현운경, 2006).
 15) 북한문단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조선문학축전상’ 2002년도 소설부문 수상자로 알려져 있으며 2010년에 문화상에 임명되었다(이계환, 2010). 문화상은 문화부장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6) 김병훈은 김일성 혁명역사 소설로 ‘영웅’ 칭호 받은 바 있다(한겨레, 2019. 10. 20).
 17) 울산매일(2011. 11. 26), “무용가 최승희 선생 탄생 100주년”.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977>, 2025. 03. 04>.

2) 기념도서 발행식, 연구토론회, 연환모임

같은 날(11월 24일) 화환 증정식에 이어 최승희의 생일 100주년을 기념하는 도서의 발행식과 연구토론회가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인민문화궁전은 평양에 위치한 다목적 문화시설로 과거 북고위급회담의 장소로 사용된 바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¹⁸⁾ 『로동신문』에 따르면 이곳에서 도서 『태양의 품에서 영생하는 무용가』(배윤희, 2012; 그림 3 왼쪽 참조)의 발행식, 참여자들의 토론, 시범공연이 진행되었다(로동신문, 2011. 11. 25). 기사는 세계예술사에 뚜렷한 자국을 남긴 최승희의 생애와 그에 대한 김일성과 김정숙¹⁹⁾ 그리고 김정일의 극진한 대우 등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또한 도서를 발행한 문학예술출판사 대표사장이 발행사를 했다는 점도 보도했다.

이어진 연구토론회에는 량창남 조선무용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미남 부장, 최정렬 피바다가극단 조선무용연구소 소장, 임수향 재일본조선문화예술가동맹 부장이 참여하여 최승희 춤과 그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조선무용기본동작의 시범공연(그림 3 오른쪽 참조)도 진행되었는데 “최승희 선생의 지도 밑에 배우생활을 한 70대의 노연구사들과 금성학원 중학반 4학년(나이는 14살) 학생들이 출연하여 걷는 동작, 팔매는 동작, 손벽치는 동작, 무릎치는 동작, 뛰는 동작, 도는 동작 등” 선보였다고 전했다(조선신보, 2011. 11. 26; 이계환 2011 재인용). 행사의 구성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 당국이 최승희 춤의 실기와 이론은 물론 과거세대와 현대 무용가들과의 연속성을 두루 포괄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기념도서²⁰⁾와 연구토론회²¹⁾

다음 날인 11월 25일에는 평양교예극장에서 최승희 생일을 기념하는 연환모임이 개최되었다(통일신보, 2011. 12. 03). 『통일신보』에 따르면 이 행사에서는 여성군무 「부채춤», 남녀 2인무 「목동과 처녀», 여성군무 「쟁강춤», 여성군무 「장고춤」이 이어졌고 관람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들 작품은 최승희와 안성희가 창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안동춘 문화상, 김병훈 문예총중앙위원회 위원장, 무용예술부문 사람들, 예술인들과 재일조선무용가대표단, 중국상하이 김성²²⁾무용단 총감독이 참여했다

18)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민문화궁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6890>, 2025. 12. 23>.

19) 김정일의 생모로, 무용재능이 상당하여 지도까지 담당했다는 일화들이 북한매체에서 자주 다루어진다(박은혜, 2023, p. 169).

20) 이계환(2011. 11. 26). “평양에서 최승희 생일 100돌 기념 다양한 행사 열려”. 통일뉴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744>, 2025. 04. 05>.

21) 在日本朝鮮文學藝術家同盟-文芸同 munedong. “崔承喜 최승희 동방의 무희”. (장면 갈무리). <https://youtu.be/S2_esSoRKYs, 2024. 11. 03>.

(로동신문, 2011. 11. 27). 이로 미루어볼 때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에 끼친 최승희와 북한무용의 영향력을 부각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토론회와 연환모임은 월간잡지 『조선예술』에 사진기사로도 소개되었는데 토론, 시범공연, 부채춤공연 그리고 만찬의 모습이 수록되어 있다(조선예술, 2012년 제4호, p. 60).

3) 「사도성의 이야기」 개작 공연

연환모임 다음날인 11월 26일에는 평양대극장에서 국립민족예술단에 의해 「사도성의 이야기」가 공연되었다(로동신문, 2011. 11. 27; 그림 4 참조). 「사도성의 이야기」는 최승희가 동양발레의 이상을 실천한 대표작으로, 신라시대에 존재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사도성에서 왜적에 대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며 국내에는 5막 6장의 구성으로 알려져 있다(20세기 북한예술문화사전).²²⁾ 다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 작품을 1시간 20분 분량의 4장 구성 무용극으로 보도하고 있어(조선신보, 2009. 07. 23; 통일뉴스, 2009. 07. 23 재인용) 국내에 알려진 정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작품은 1950년대 북한 최초 컬러 영화로 제작되어 동유럽으로 수출되는 등 사회주의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20세기 북한예술문화사전).²⁴⁾ 그러나 이후에는 「사도성의 이야기」가 자본주의적 무용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면서(유미희, 2006, p. 29) 최승희 숙청의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작품의 재연은 북한 정권이 최승희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평가를 뒤집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 「사도성의 이야기」 개작공연²⁵⁾

이날의 공연이 최승희 사후에 진행된 최초의 재연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신보』를 인용한 『통일뉴스』에 따르면 적어도 2008년 4월부터 재연공연을 준비했으며 2009년에 초연을 목표로 했다(조선신보, 2009. 07. 23; 통일뉴스 2009. 07. 23 재인용). 이로 미루어 볼 때 2011년의 최승희 탄생기념 공연은 약 3여 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완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로동신문』은 해당 공연이 원작을 충실

22) 중국의 유명 트랜스젠더 무용가로 중국이름은 진성(金星)이다. 어머니가 부산, 아버지는 평양 출신인 조선족이다. 중국 최초의 무용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윤인하, 2025) 현재 자신의 이름을 내건 무용단을 운영 중이다.

23) 북한대학원대학교. “사도성의 이야기”. 『20세기 북한예술문화사전』. <<http://www.nks.ac.kr/Word/View.aspx?id=2200>, 2025. 11. 23>.

24) 앞의 자료.

25) 연합뉴스(2011.11.28.). “北, 최승희 탄생 100주년 기념 창작극 공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5393485>, 2025. 04. 05>.

히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변형을 가미하여 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로동신문, 2011. 11. 27). 이러한 재연 및 개작 과정은 시기상 김정일 집권기에 걸쳐 진행된 것이다. 개작공연 시 안무는 인민예술가 김해춘이 담당했으며 5장 8경, 종장으로 재구성되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p. 435).

당시 공연에는 김기남²⁶⁾, 양형섭²⁷⁾, 안동춘 문화상, 김병훈 문예총 중앙위원회 위원장, 무용 및 출판 관계자, 예술가, 기자, 유가족, 임수향 단장의 재일조선무용가대표단, 북한 체류 해외동포 등이 관람했다(로동신문, 2011. 11. 27). 북한의 정치계 및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은 물론이고 해외동포들의 관람도 허가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최승희 예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복권을 대내외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예술사적으로 공표하고자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화환 진정 의식, 도서 발행식과 연구토론회, 연환모임 그리고 개작공연은 북한에서 개인과 관련된 행사로는 김일성 가게 외에 전례가 없는 경우라고 평가받는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p. 434 재인용). 이는 최승희 복권이 북한사회에서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를 잘 보여준다.

2. 국가적 상징으로의 격상

최승희는 작품의 창작과 교육의 토대가 되는 여러 저서도 남겼다. 대표적인 저서 『조선민족무용기본』은 월북 이후인 1958년 평양 조선예술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한국에서 이 책은 “최승희가 30년 넘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 동작을 분류하고, 주요 작품의 기본 동작을 설명과 그림을 덧붙여 기록한 최초의 무용 훈련서(전영선, 2025)”로 알려져 있다. 북한무용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저서는 현재 북한에서 “우리 민족무용의 표준화된 동작들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민족적정서가 강하고 우아한 춤가락들을 집대성하여 과학적으로 정립한 조선민족무용전서(조선예술, 2018년 제1호, p. 30)”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에서 이 저서는 최승희 숙청 이후 대부분 소실되었으나, 김정일의 유혼에 따라 2011년에 이 문헌에 바탕을 둔 최승희 춤체의 보급이 전개된 바 있다(김지니, 2021, p. 282). 북한에서 춤체란 “춤의 가락, 룰동, 련걸, 걸합 등 형상의 매 요소에서 표현되는 무용가의 예술적 개성의 총체”를 가리키며 “무용예술의 민족적특성을 나타내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량홍일 외, 2015, pp. 108-109). 최승희 춤체는 북한에서 인민의 감정, 정서, 취미에 맞고 서정적이면서도 기백이 있으며, 우리 장단 고유의 멋을 갖고 있고, 생리적 조건을 고려하면서도 미학적으로 다듬어져있다고 평가된다(량홍일 외, 2015, pp. 109-110). 이후 본격적인 김정은 집권기에 이르러 이 춤체는 ‘조선민족무용기본’으로 체계화되었으며 2017년 10월에는 국가문화재 지위에 해당하는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김지니, 2021, p. 279; 조선신보, 2022. 05. 08). 『조선예술』은 이 일을 두고 『조선민족무용기본』이 국보로 위치하게 된 일이라고 보도했다(조선예술, 2018년 제1호, pp. 30-31). 이 때 최승희의 춤체계 뿐 아니라 5종의 「탈춤」, 2종의 「농악무」 등도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있다(김지니, 2021, pp. 289-290). 이로 미루어 볼 때, 최승희의 춤은 탈춤이나 농악무 등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민족 문화를 대변하는 국가적 상징으로 격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26) 김씨 일가를 이상화하는 등 북한 전체주의 정권에서 수십 년 동안 체제 선전에 앞장선 인물로 알려져 있다(켈리 웅, 2024).

27) 북한의 주체사상을 주도한 인물이자 김일성 주석의 사촌동생인 김신숙의 남편이다(유신모, 2022).

그러나 북한의 문화예술에 대한 전형적인 서술방식에 따라, 이러한 성과 역시 최승희 개인의 업적보다는 김일성 일가의 인도와 도움으로 가능했다는 점이 강조된다. 『조선예술』의 기사는 이 책의 저자로 최승희를 전면으로 내세우지는 않으며 그 대신, 김일성이 생전에 조선무용의 우월성을 역설하며 『조선민족무용기본』을 완성하도록 이끌었으며 그 결과물에 만족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김일성이 민족무용은 고귀한 문화재보라고 교시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 저서가 민족의 자랑이라고도 강조한다. 특히 1940년대에 김일성이 무용연구소를 방문했던 일화를 전하면서도 최승희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채 “무용연구소의 일군들과 창작가, 연구생들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춤가락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정리하는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과 함께, 김일성이 그 성과를 그들에게 돌려주어 감격해했다는 내용을 감상적으로 설명한다.

이와 달리 『통일신보』에 게재된 피바다가극단 조선무용연구소 연구사 남수향의 인터뷰에서는 『조선민족무용기본』의 저자가 최승희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 춤체가 민족무용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최승희선생은 많은 무용작품들에 출연하여 자기의 춤체를 더욱 완성해나가는 한편 조선무용의 형상기법을 과학적으로 정립하고 체계화한 <조선민족무용기본>을 완성하였다. 민족무용발전에서 큰 몫을 차지해온 최승희 춤체는 오늘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민족성이 강한 춤체로, 예술적 품위가 높은 춤체로 인정되고 있다(통일신보, 2018. 12. 22).”

그럼에도 이 기사 역시 최승희 능력이 북한에서 발휘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를 귀중히 여긴 김일성 일가의 은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최승희의 춤을 체계화, 발전, 보급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이들 지도자의 노력 덕분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최승희의 이름이 때로 가려지기도 하지만, 북한이 현재 그의 책 『조선민족무용기본』에 기반한 무용체계를 복원, 재정립, 보급하고 이를 문화재로 승인하여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3. 역사적 재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최승희를 여러 경로로 복권해왔다. 여기에서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최승희 재평가의 양상을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일제의 핍박과 나라 잃은 설움을 이겨낸 세계적 민족예술가

최승희의 일대기를 다룬 북한의 글들은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상황을 서술하며 시작된다. 일본의 문화찬탈과 억압 속에서 민족적인 예술이 필요했던 시대적 상황이 강조(문성렬, 배운희, 2010; 배운희, 2012; 량홍일 외, 2015)되는 것이다. 망국의 비운이 드리우고 일제의 침략으로 구차한 생활을 이어나가던 상황 속에서도 최승희는 명석했고 무용가로서의 타고난 자질도 빛났다는 기술로 이어진다(문성렬, 배운희, 2010, p. 330 ; 배운희, 2012, p. 25). 이러한 맥락에서 최승희의 무용입문이 개인적인 예술적 지향보다는, 민족 무용을 무대화하여 민족혼을 알리려 했던 오빠 최승일의 권유와 영향에 기인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서술된다(민족문화유산, 2007년 2호; 문성렬, 배윤희, 2010, pp. 331-332; 배윤희, 2012, p. 26; 량홍일 외, 2015, p. 65).

주목할 점은 최승희의 스승인 이시이 바꾸(石井漢)(정병호, 1995; 성기숙, 2003)로 상징되는 일본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예술교육』 기사에 따르면 최승희가 “일본인이 운영하는 어느 한 무용연구소 하녀로 취직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할 뿐 스승의 이름은 명시하지 않는다(예술교육, 2009년 제3호, p. 50). 이는 최승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도서 『태양의 품에서 영생하는 무용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오빠의 권고대로 어느 한 무용단에 들어가 춤을 배우기로 결심하였다”고(배윤희, 2012, p. 26)만 설명한다. 물론 일부 글에서는 최승희가 이시이 바꾸의 무용연구소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밝히고(민족문화유산, 2007년 2호; 문성렬, 배윤희, 2010) 그의 무용은 독일의 방식에다 일본의 것을 배합한 개량춤이었다고 언급하기도 하지만(문성렬, 배윤희, 2010, p. 333) 이 부분은 다른 행적들에 비해 매우 간략하게 다루어진다. 반면 최승희는 조선의 춤들이 이시이 바꾸의 것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서술된다(문성렬, 배윤희, 2010, p. 333).

이와 더불어 북한 문헌들은 최승희를 식민지 상황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한 예술가로 형상화하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도쿄에서 최승희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무용연구소를 차렸을 때 “당시 모든 조선식이 금지당할 때도 그만은 누구도 다치지 못하였다(예술교육, 2009년 3호, p. 50)”라든지 일본에서 공연했을 때 일본관객과 엘리트들의 열렬한 환호가 있었다(문성렬, 배윤희, 2010, p. 341)라고 부각하거나, 최승희 전성기 당시 출연료가 이시이 바꾸의 10배에 달했고 그가 최승희를 세계적 무용가로 인정했다(문성렬, 배윤희, 2010, p. 343)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최승희는 북한 인민은 물론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 10대무용가의 한 사람”이며, 민족이 낳은 뛰어난 예술가라고도 보도한다(민주조선 2014. 05. 09).

나아가 최승희는 일제의 압력에 저항하는 항일적 주체성을 지닌 동시에, 조선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민족적 예술가로 묘사되기도 한다. 『태양의 품에서 영생하는 무용가』에서 “최승희는 《샤이쇼끼무용단》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연을 하라는 일제의 강요를 박차고 최승희 무용단으로 세계 각국 순회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순회공연에서 열광적 환호를 보내는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이 조선무용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밝혔다고 서술된다. 동시에 그가 많은 나라에서 공연했으나 어느 나라도 조선을 알아주지 않았고 나라 잃은 조선민족의 불행에 동정조차 표시하지 않는 현실에 괴로워했다고 묘사된다(배윤희, 2012, p. 31). 또한 그가 미국 공연에서 나라 잃은 민족의 눈물겨운 감정을 안고 울며 춤을 춘 적이 있다고 전하며(재일본조선문화예술가동맹, 2021) 그의 행보에 민족주의적 색채를 덧입힌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들은 최승희가 일본 활동 초기부터 특히 창씨개명 이전부터 해외 활동 시 일본식 이름을 사용했으며, 일제의 지배논리를 내면화하면서 친일에 적극 가담했던 사실(조경아, 2024, pp. 22-23)과는 상반되는 설명이다. 북한에서 항일담론은 김일성 일가의 권력 정통성에 있어 중요한 기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승희를 복권하기 위해서는 그의 친일 행적을 철저히 은폐하는 동시에 항일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가 민족문화를 통해 인정받은 국제적 예술가임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민족무용 현대화의 선구자이자 주체를 구현한 예술가

최승희는 민족 춤을 학습하거나 조사하였고 이를 자신이 체득한 서구식 무용기법에 접목하여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고 무대화했다. 이러한 그의 예술적 특징은 김일성 시기 이래 민족문화의 보존보다는 현대화에 중점을 두어온 북한의 오랜 문예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이 부분은 현재 북한 내 최승희 재평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김일성 회고록에서 최승희는 “민족적 정서가 강하고 우아한 춤가락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현대조선민족무용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김일성, 1994, p. 55).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최승희 탄생 100주년 기념도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성준에게서 수업을 받은 후 - 필자 주] 그 때부터 최승희는 우리 나라의 방방곡곡을 메주밟듯 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춤가락들을 찾아내고 무당들을 만나보았으며, 승무를 보기 위해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궁중무용에 조예가 있다는 사람들도 찾아갔으며 지방마다 다르게 변색되어 류전되는 민간무용들인 농악무, 탈춤, 포수들의 사냥춤, 바가지장단에 흥을 돋구는 두레 놀이의 춤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수집한 춤가락들에서 민족무용의 고유한 우수성을 찾아내고 다듬었으며 그것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세련시켜 무대에 올릴 수 있게 하였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 고대, 중세력사를 더듬으며 탐구한 전통무용과 당시 남아있던 민간무용과 궁중무용, 승무, 기생무 등에서 민족적 색채가 짙고 우아한 춤가락들을 하나하나 고르고 다듬어 완성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새로운 무용작품들을 창작하였다(배윤희, 2012, p. 28).”

이와 마찬가지로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의 웹사이트에서도 최승희는 “우리 나라 방방곡곡을 편답하면서 전통적인 춤가락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다듬어갔고 현대적미감에 맞게 세련시켜 무대”에 올린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2021). 즉, 북한에서 최승희의 춤은 민족적 특성에 기반을 둔 역사적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 후에 이어지곤 하는 것이, 김일성이 직접 최승희를 평양으로 초청했으며 최승희는 월북 후 김일성의 전폭적 후원과 지도를 받으며 창작과 교육 그리고 연구에서 정점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서술이다.

“그는 아버지 수령님의 높은 신임과 크나큰 사랑 속에 <최승희 무용연구소> 소장의 직책을 지니게 되었으며 수령님께서 몸소 자리를 잡아주시고 거액의 자금을 들여 지어주신 연구소에서 마음껏 예술적 재능을 꽃피울수 있었다(민족문화유산, 2007년 제2호).

“아버지수령님께서 이렇게 보아주시고 지도하여주신 최승희의 무용작품은 수십편이나 되며 그 과정에 최승희는 우리 민족, 우리 인민이 요구하는 우리 식의 민족장단을 타고 흐르는 주체가 선 무용을 창작하는 무용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2021. 04. 29).”

표면적으로는 최승희가 북한에서 자신의 예술활동을 마음껏 펼쳤던 것으로 보이지만, “주체가 선 무용을 창작하는 무용예술인”이 되었다는 설명에서 알 수 있듯 그가 북한의 정책노선을 성실히 구현해낸 사람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체사상에 대해 김일성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라고 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²⁸⁾

김정일은 이를 이론화하면서 주체사상을 곧 “김일성 주의로 정식화”한 바 있으며 이는 지금도 북한의 주요 통치이념으로 위치해있다(통일부 북한정보포털).²⁸⁾ 이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최승희의 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그의 춤은 다른 나라의 춤들과 달리 대중의 공감을 얻으며 인민들의 정서, 미감, 취미에 맞는 예술이었다는 점이 강조된다(조선예술, 2013년 제1호, p. 53;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2021). 이는 북한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의 지향점 즉 역사적 주체인 인민대중을 위한 예술로 최승희의 춤이 충실히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최승희의 춤 활동은 김일성주의를 철저히 실현한 결과물로 이해되고 있다. 최승희가 북한의 첫 송가무용인 「김일성장군님께 올리는 헌무」와 김일성 탄생 50주년을 기념하여 「만경대의 해돋이」를 창작했다는 설명(배윤희, 2012, p. 179; 문성렬, 배윤희, 2010, p. 403) 등이 그 예이다. 또한 현재 북한문헌들은 1960년대 말 최승희의 글들을 인용하며 그가 인민의 영예는 수령의 영도 밑에서 전진하면서 얻어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수령을 믿으며 무용가들이 조국에 재능을 바쳐야한다고 호소했으며, 김일성의 존재 때문에 북한무용이 인류의 보물고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부각한다(문성렬, 배윤희, 2010, pp. 559-563).

이상에서 알 수 있듯 북한에서 최승희의 복권은 그의 예술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체제 결속을 위해 최승희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측면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최승희 복권의 정치적 함의

1. 김일성 일가 세습통치 정당성의 기제로 활용

북한에서 예술활동은 철저히 정치와 결부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승희의 복권 역시 통치를 위한 도구로 활용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승희 복권의 하이라이트인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를 다룬 한 기사에서, “토론자들은 최승희선생이 민족무용의 기초를 마련하고 우리 나라 무용발전에 지울 수 없는 자욱을 남길 수 있는 것은 백두산3대 장군의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사랑을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통일신보, 2011. 12. 03)”고 전한다. 이 기사가 보도될 당시 백두산3대장군은 김일성,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 그리고 김정일을 의미했기에, 최승희 활동의 가치는 이들의 영향력 아래에서만 성립 가능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에서 최승희 예술에 대한 재평가는 김일성 일가 세습 통치의 정당성 확보라는 테두리 안에서 기획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자료들에서는 최승희의 행적마다 김일성 일가의 영향을 강조한다. 최승희 생전에는 김일성 및 김정숙의 큰 지원과 관심이 그리고 최승희 사후에는 김정일의 지속적이며 온정적인

28)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일성주체사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0280>, 2026. 03. 02>.

29) 통일부. “주체 사상”.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pge/view.do;jsessionid=K8TRcA9aHohf_muHtC4yY2UdfX4v7n1LB9_gg2TW.ins22?menuId=PO001, 2026. 03. 04>.

조치가 있었다는 점이 자세하게 설명되곤 한다. 대표적으로 최승희 탄생 100주년 기념도서인 『태양의 품에서 영생하는 무용가』에서는 최승희가 세계 순회공연을 통해 국제적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소민족의 원한을 갖고 있었는데, 김일성을 만나고부터 조국을 위한 진정한 무용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배윤희, 2012, pp. 7-25). 또한 김정숙의 자애로움과 지도 아래 연구와 공연활동이 가능했다는 점, 최승희 사후에 김정일은 그를 잊지 않고 애국자로 내세워주었다는 점도 강조한다(배윤희, 2012, p. 154, p. 163). 다만 김일성 정권시절에 그가 무대에서 사라진 배경이나 구체적인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서 다루지지 않아, 그의 행적이 북한 당국에 의해 선별적으로 재구성 및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김일성 일가의 지원은 최승희에게 직함을 부여하거나 활동여건을 만들어주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작품의 방향을 지시하고 창작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그의 예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으로까지 나아간다. 김일성이 「반야월성곡」과 「쫓겨가는 무리」와 같은 작품에 일제에 투항하는 인민의 모습을 담을 것을 교시했다거나, 김정숙이 「김일성장군님께 올리는 헌무」를 보고는 독무보다 군무가 좋겠다고 의견을 주면서 작품 앞에 김일성을 위한 헌시를 넣을 것도 지도했다는 설명이 대표적이다(조선 예술 2012년 제4호, p. 16). 이에 최승희는 자신의 결함을 포착하여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김일성의 능력에 탄복했다고 묘사된다. 또한 최승희 자신은 상상할 수 없던 예술의 싹을 김정숙이 틔워주었다는 일화들도 보도되고 있다(예술교육, 2013년 제3호, p. 18). 이로 미루어볼 때 북한에서 최승희의 뛰어난 예술적 업적은 개인의 역량을 넘어 김일성 일가의 교시를 철저히 수용했기에 가능한 결과로 선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정권은 주민들에게 이처럼 뛰어난 지도자를 가진 것을 자랑으로 여길 것과 누구든 북한의 지도자를 따르면 참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최승희 사후 김일성이 회고록에서 그를 다시 언급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이고 공식적인 복권작업이 수행된 것은 김정일 집권기에 이르러서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애국열사릉에의 안치를 시작으로 춤체의 정리에 이르기까지, 최승희 복권 과정의 핵심적인 행사와 의식들은 대부분 김정일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 문헌들은 이러한 복권 조치가 김정일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었음을 빈번히 언급하며, 특히 그의 관심이 집권 이전부터 시작된 장기적인 것이었음을 강조한다. 최승희 탄생 100주년 기념 도서에 따르면 김정일의 복권 지시는 1970년대부터라고 한다. 이때부터 김정일은 “최승희가 창작하고 출연한 《부채춤》을 예술영화 《세상에 부림없어라》에 넣도록” 했으며 “무용작품인 《환희》를 3.8국제부녀절 60돌 기념 공연무대에 올리도록” 지시했다(배윤희, 2012, p. 164). 이어 1970년대~1980년대에 최승희의 작품 「농악무」, 「목동과 처녀」, 「쟁강춤」, 「조개 캐는 처녀」를 비롯한 여러 작품을 재현하도록 했으며, 최승희의 저서 『조선민족무용기본 1, 2』를 교육사업에 이용하고 춤체를 살릴 것을 지시하여, 최승희 사후에도 그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도록 했다는 점도 기록하고 있다(배윤희, 2012, pp. 164-5). 이처럼 김정일은 최승희 예술의 보존과 발전에 오랫동안 힘쓴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최승희 창작 활동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설명되는 김일성과 역할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김일성이 이룩한 조선문화의 자산을 김정일이 충실히 계승했다는 논리를 최승희 복원사업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김정일의 행보는 김일성에 비해 최승희의 명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공고히 하려 했던 전략적 판단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최승희 복권은 현재 김정은 집권기의 지배논리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이 권력을 공식적으로 승계하기 이전이었으나, 최승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진행된 2011년이라는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김일성의 생년인 1912년을 원년으로 삼는 북한 특유의 연도표기법에 따라 주체100년이 되던 해였다. 북한 체제에서 민족의 태양이자 수령으로 추앙받는 김일성의 탄생 주기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시기임에도 예술가 개인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치른 것은, 김일성 일가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북한이 이룩한 문화적 성과들을 선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은 이러한 후광을 입으며 이듬해인 2012년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권력을 승계하게 된다. 특히 김정은이 조부 김일성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에서, 김일성의 행적과 교차하는 최승희 삶과 예술을 복권하는 일은 김정은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데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김정은은 최승희 복권을 경유하며 북한주민들에게 김일성의 유산을 정통으로 계승하는 유일한 후계자로 공표된 것이다.

김정은이 집권한 후인 2017년에, 최승희의 춤동작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국보급 문화재인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제도는 김정은 집권기에 강조 및 확장되었는데 이를 통해 북한이 문명국이자 정상국가로 자리잡고 세계질서에 진입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김지니, 2021, pp. 258-259). 이는 김정은의 북한이 사회주의 문명강국으로 거듭나고자하면서(권속도 외, 2023, p. 269) 유네스코등재를 위한 민족유산 발굴에 적극적인 상황(권속도 외, 2023, p. 300)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물질문화유산에 최승희의 춤동작들이 등록되었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그의 춤을 사회주의 문명국을 위한 문화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김지니, 2021).

2.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에 모범이 되는 예술가로 선전

북한의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의거하여 북한문헌을 살펴보면 최승희는 모범적인 예술가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사회주의 대가정은 북한 사회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면서 수령·당·민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보는 개념이다(국립통일연구원, 2021).³⁰⁾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대를 이어 수령이 지도하고, 주민들은 수령을 아버지처럼 여기며 충성과 효도를 다하는 것”(마성은, 2022)이 강조된다. 이에 더하여 개인적 목표나 가치보다는 집단의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이상적 인간으로 여겨진다(권속도 외, 2023, pp. 20-21).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승희가 김일성과 김정숙의 지도를 받고 그들의 은덕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모습이 강조되거나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 대를 이어 최승희의 춤과 업적을 보살폈다는 설명 등은, 부모의 위치에 김일성일가를 그리고 자녀의 위치에 최승희를 대입하여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일성이 “무용연구소를 내은 목적은 그 누구의 이름이나 떨치자는데 있는 것이 아니(예술교육, 2013년 제3호, p. 11)”였다고 설명했던 부분 역시 북한에서 사적인 목표나 가치추구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개념에 매우 적합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30) 국립통일교육원, “사회주의 대가정”,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knwdlg/view/knwdlg.do>, 2026. 03. 05>.

다만 이러한 서술에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적 수사(Rhetoric)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독해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평양 측에서 최승희에게 월북을 제안했고(강이향, 1986, p. 176) 김일성이 대동강변의 요정이었던 동일관 자리에 최승희무용연구소를 설립해준 것(20세기 북한예술문화사전)³¹⁾은 사실로 보인다. 또한 최승희가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인민배우, 조선무용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무용학교 교장, 국립무용극장 총장(통일신보, 2018. 12. 22.)” 등의 직책을 두루 거치며 중앙정치와 예술계에서 핵심권력으로 위치하게 된 것, 중국과 소련에서도 교육이나 공연활동을 하게 된 것 등도 김일성 권력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가능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최승희는 자신의 예술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으며 스스로 세계적 예술가라고 칭하였고 때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수발을 들게 할 정도로 권위적인 성격을 지녔는데 이는 북한에서도 이어졌다고 알려져 있다(정병호, 2011). 이러한 최승희가 김일성이나 김정숙의 작품 지도를 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최승희의 기질은 “김일성이 생각하는 대로 사고하고 가리키는 대로 행동하는 정신 행동 체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³²⁾를 강요하며 1960년대 말 북한에서 자리 잡은 유일사상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론하건대, 예술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완전히 굽히지 못한 그녀의 태도가 김일성유일사상과 부딪히며 숙청의 계기가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만일 최승희가 북한문헌의 설명대로 김일성의 사상을 변함없이 충실히 실천했다면, 남편과 오빠의 숙청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었던 그의 공적인 활동은 생애 끝까지 지속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현재 북한문헌에 나타난 최승희에 대한 서사는 그의 사후에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재구성된 측면이 크며 선전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은폐된 국가폭력

최승희 가족인 오빠 최승일과 안막은 월북 후 한동안 요직을 거치며 활발히 활동하였으나, 1950년대 즈음 숙청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에도 최승희와 그의 딸 안성희는 한동안 활동을 이어갔으나 1960년대 말 즈음하여 이들 역시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치적 강압에 의해 무대에서 떠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적 행적은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본 북한문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 여기에서는 최승일, 안막, 최승희를 중심으로 그녀의 복권과 재평가 과정에서 철저히 은폐된 국가폭력의 흔적을 탐색하고자 한다.

최승희의 예술은 그의 강력한 후견인이었던 오빠 최승일과 남편 안막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문학가였던 최승일은 최승희에게 무용예술의 가치를 일깨워주었으며 그를 이시이 바쿠에게 직접 소개하여 무용에 입문하도록 했다. 저술가였던 남편 안막은 최승희 매니저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녀의 성공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최승일과 안막은 모두 카프(KAPF: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에 가담하였으며 월북하였다.

이러한 최승일의 행적과 역할은 최승희 복권 후 출판된 북한의 최승희 평전에서도 비슷하게 묘사

31) 북한대학원대학교, “최승희무용연구소”. 『20세기 북한예술문화사전』. <<http://www.nks.ac.kr/Word/View.aspx?id=2162>, 2025. 12. 23>.

32) 한국학중앙연구원, “유일사상체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1769>, 2026. 02. 14>.

된다. 그는 “동생의 인물체격과 소질, 우리나라 무용의 실태를 놓고 생각하던 끝에 장차 녀동생을 무용가로 키울 결심(문성렬, 배윤희, 2010, pp. 331-333)”을 하였으며 그의 노력 끝에 최승희가 1926년에 일본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조선예술, 2012년 4호, p. 15). 특히 “최승일은 우리 인민 고유한 자기의 것으로 세상 앞에 내세울 똑바른 무용이 없는 것이 늘 가슴에 걸려(량홍일 외, 2015, p. 62)”있던 사람으로 형상화 된다. 주목할 점은 최승일의 결단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당시 카프 작가들이 무용에 가졌던 예술적 관심과 긴밀히 맞물려 있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최승일은 최승희로 하여금 새로운 무용계를 개척하도록 독려했던 것으로 설명된다(문성렬, 배윤희, 2010, pp. 331-332)는 것이다. 즉 최승일이 민족적이고 계급해방적 내용을 주제로 한 소설을 창작했듯이(배윤희, 2012, p. 26), 최승희를 통해 무용에서도 동일한 예술적 목표를 실현하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1950년대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건너간 카프계열 작가들이 대거 희생되었다고 알려져 있다(한상언, 2022). 이들과 함께 최승일과 안막도 숙청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학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최승희 관련 북한 문헌들은 최승일의 최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최승희와 결부된 최승일의 행적이 북한 문헌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양상은 그의 위상이 현재에는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그의 자녀인 최로사³³⁾와 최호섭이 북한 문화계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연좌제가 적용되는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공식적 활동은 부친의 명예 회복이 기반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로사는 최승일과 배우 석금성의 사이의 장녀로 아버지를 따라 월북했다. 그녀는 북한에서 유명한 시인으로 명성을 떨쳤는데, 노동신문에서는 최승희와 이들의 삶이 빛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계환, 2011). 2003년 최승희 묘지 이장 시 묘비 앞에서 최로사가 추모사를 했다는 점도 전해진다(차길진, 2017). 더불어 최호섭은 최승희의 제자로 만수대예술단 안무가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다(이제훈, 2025). 그는 최승희에 대해 “고모이기 전에 엄격한 선생이었다고, 선생치고도 매정하다 할 정도로 랭랭한 교원이었다고,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요구하고 규율을 세웠다고 회상”한 바 있다(문성렬, 배윤희, 2010, p. 613). 이어 그는 최승희가 자신에게 남성춤을 완성할 것을 요구했으며, “남성들의 뛰기기교동작들을 비롯하여 남성들의 동작들을 완성하기 위하여 고심어린 탐구와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문성렬, 배윤희, 2010, p. 615).

이처럼 최승일과 그 자녀에 대한 서술이 비교적 빈번히 등장하는 것과 달리, 최승희 남편 안막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북한 문헌들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북한 연구의 특성상 정확한 내막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안막은 최승일이나 최승희에 비해 복권을 위한 정치적 명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승희의 애국열사릉 안치 당시 과거 숙청되었던 카프출신의 월북 작가인 한설야도 함께 안치되었음에도(통일뉴스, 2003. 02. 10), 그와 유사한 경력을 지닌 안막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만 최승희가 국제적으로 성공하고 월북하게 된 과정 그리고 북한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 데에는 안막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그의 존재감이 최승희 복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북한권력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살펴본

33) 월북 무용가 최승희의 조카이자 ‘김일성상’을 받은 유명시인이다(연합뉴스, 2011. 03. 12).

북한 문헌들은 최승희의 성공 서사나 월북 경위, 창작 및 교육 활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안막의 기여를 전혀 조명하지 않는다. 북한문헌들은 안막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부각하곤 하는데 특히 최승희의 월북 경위와 관련해서는 여운형과 김일성의 역할만 강조한다.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조선인민당 당수였던 여운형은 최승희가 해방 이후 남조선 사회에 환멸을 느끼던 때에 북한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준 인물로 그려진다(량홍일 외, 2015, pp. 78-79). 물론 이것이 월북의 직접적 계기로 설명되지는 않지만 최승희가 월북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된 배경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문헌들은 최승희의 월북이 김일성의 친서 전달(량홍일 외, 2015, p. 81)과 직접적인 평양 초청(민족문화유산, 2007년 2호)에 의해 성사되었음을 부각한다. 김일성의 초청이 있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승희의 월북에 안막의 권유와 역할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안막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은 안막의 업적을 경계하면서 그에 대한 숙청과 정치적 억압을 현재에도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최승희가 현재 북한에서 복권되기는 했지만 그의 숙청과정이나 사망경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북한 문헌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최승희의 삶을 다룰 때 그의 성장기, 무용입문과정, 국제적 무용가로의 성장, 월북이후의 활동, 월북 후의 대외활동 등은 상세히 조명되지만, 문헌이든 영상이든 모두 1950년대 중반에서 서사를 멈춘다. 그의 사망 시기를 1969년으로 명시하면서도 1950년대 중반부터 1969년 그의 사망까지의 약 10여 년의 시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의 공백은 그가 김일성 집권기에 정치적 이해에 따른 국가폭력의 피해자였다는 해석에 설득력을 부여한다.

IV. 결론

이 글에서는 최승희의 북한 내 복권 양상과 그에 내포된 정치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문헌과 영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94년 김일성이 회고록에서 최승희를 언급한 이후부터 현재의 김정은 정권에 이르기까지 최승희는 지속적인 경로로 복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를 기리는 의식과 공연을 포함한 각종 기념행사,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최승희의 춤체계, 민족이 낳은 세계적 무용가로 평가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한편 이러한 최승희의 북한 내 복권은 그의 예술적 가치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사회의 특성상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측면도 상당했다. 그의 복권은 김일성 일가 3대 세습통치 정당성의 기제로 활용되고 있었고, 최승희의 생애는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 맥락에서 모범적 사례로 선전되었으며, 최승희 및 가족에 가해진 국가폭력은 은폐되고 있었다.

최승희가 남북한 모두에서 복권되었다는 점은 예술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는 우리민족 고유의 춤을 바탕으로 현대적 작품을 창작하는 한편 이를 세계에 알린 선구적 인물로 여겨진다. 남북 모두 그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적어도 북한의 경우 그의 삶을 정치적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생전에도 북한체제의 프로파간다에 적극 동원되었으며(전영선, 김지니, 2007; 김희선, 2019, p. 168) 국가를 알리는 대외 무대에 나서곤 했다(한경자, 2020). 김일성 체제 구축과정에서 방해가 되자 그를 숙청했던 북한정권은, 현재에 이르러 복권이라는 명분 아

래 지배구조를 공고화하기 위해 그를 다시금 동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신문기사의 경우 김정은 집권 초기라 할 수 있는 2014년 이전까지의 자료가 대다수였으며 이후 관련 기사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보도 빈도의 하락은 현 정권의 최승희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이전보다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이 선대의 지도자들에 비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물론 최승희가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과 업적을 남겼기에, 미래 어느 시점에서 북한정권의 또 다른 필요가 발생한다면 그의 춤과 삶의 특정 부분이 다시 조명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본 연구는 1994년 김일성 회고록부터 현재 김정은 정권에 이르기까지 약 3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최승희의 복권 양상을 폭넓게 다루면서도, 춤과 정치의 관계를 북한사례를 통해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북한 체제 내 최승희의 재소환 방식을 분석하는 일은 북한에서의 최승희의 위상을 이해할 뿐 아니라, 해방 후 우리 사회가 생산하고 공유해온 최승희라는 상징성을 재점검하고 무용사적 지평을 넓히는 준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최승희의 상징이 한국사회에서 구성되어왔으며 이것이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만나왔는지를 해석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단순히 예술적 가치를 확인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최승희를 우리사회의 매커니즘 속에서 생성된 구성물로 이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된다면 최승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다양한 자료를 검토했음에도 북한 자료의 특성상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진전된 논의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특히 복원 및 개작 공연된 최승희 무용극「사도성의 이야기」의 실체에 접근할 수 없어, 이것이 원작과 어떠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춤이 담보하고 있는 비언어적 메시지와 정치적 시사점까지는 살펴볼 수 없었다. 추후 충분하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집적되어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더욱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이향 편(1993). **최승희: 생명의 춤 사랑의 춤**. 지양사.
- 권숙도, 김지영, 김진환, 박계리, 엄현숙, 정은찬, 정진현, 자문석(2023). **2023 북한 이해**. 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 김석향(2003).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과 북한당국의 언어정책**. 통일교육원.
- 김채원(2008). **최승희 춤: 계승과 변용**. 민속원.
- 유미희(2006). **20세기 마지막 페미니스트 최승희**. 민속원.
- 이애순(2002). **최승희 무용예술연구: 20세기 예술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국학자료원.
- 이영란(2014). **최승희 무용예술사상**. 민속원.
- 이진아(2021). **네이션과 무용**. 도서출판 선인.
- 정병호(1995). **춤추는 최승희**. 뿌리깊은나무.
- 최승희(2023). **최승희, 나의 자서전**. 권상혁 역. 청색종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2). **2012 문예연감**.
- 김연수(2023).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의 문화외교와 최승희 세계 순회공연(1938~1940)의 추진. **청계사학**, 26, 189-226.
- 김지니(2021). 김정은 시기 무용연구 : 전통의 복원과 비물질무용유산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17(2), 256 - 295.
- 김채원(2010). 북한에서의 최승희 춤활동 성과와 기법적 토대.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65(65), 71-89.
- 마성은(2022). 사회주의 가정의 붕괴와 재결합 -리준길의 <전설은 계속된다>를 중심으로-. **우리어 문연구**, 72, 111-142.
- 박은혜(2023). 21세기, 북한무용의 지형고찰. **대한무용학회논문집**, 81(2), 157-175.
- 서승임(2023). '향토'의 상상과 재현 - 1930년대 무용가 최승희와 식민지 대만의 두 차례 만남. **한국 예술연구**, 39, 137-161.
- 성기숙(2002). 최승희의 월북과 그 이후의 행적 재조명. **무용예술학연구** 10, 101-414.
- 성기숙(2003). 일본 근대무용의 선구자, 이시이 바쿠(石井漠)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11(11), 41-71.
- 유미희(2018). 최승희 연구동향 분석 -1958년부터 2018년까지-. **무용예술학연구**, 71(4), 69-81.
- 윤지현, 윤현경, 박은혜(2019). 북한의 예술가 명예칭호 제도에 관한 연구 -음악·무용분야를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7(5), 167-186.
- 이영란(2015). 최승희 동양사상을 통한 동양무용 발달 연구. **예술과 과학기술**, 11(1), 91-114.
- 전영선(2002).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제와 문예이론**. 역락.
- 전영선(2025). 최승희를 통해 본 남북 예술의 통합 지향성 고찰. **통일인문학**, 101, 111-150.
- 전영선, 김지니(2007). 북한 공연예술단체의 대외공연 양상과 특성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1, 201-233.
- 조경아(2024). 근대 무용가 최승희의 친일 행적에 관한 역사적 성찰+. **무용역사기록학**, 73(1), 117-156.

- 최용권(2012). 최승희와 매란방. **한중인문학연구**, 36, 235-251.
- 한경자(2006). 최승희와 북한무용. **공연과리뷰**, 54, 34-40.
- 한경자(2008). 최승희 예술이 한국창작 춤에 끼친 영향. **남북문화예술연구**, 3, 233-254 .
- 한경자(2020). 최승희의 무용 작품 고찰 - 1956~1957년 소련 순회공연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과 예술**, 35, 151-182.
- 한상언(2022). 전후 북한에서 혁명 전통의 유산으로서 나운규와 카프영화에 대한 인식.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11(11), 299-323.
- 허지숙, 이성엽, 한혜영, 오경수, 정현주(2017). 북한관련 교육 분야 연구의 시대별 동향 분석과 과제.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20(4), 1-26.
- 문갑식(2019. 05). “문갑식의 주유천하 <37> 한국 최초의 세계적 韓流 스타 최승희, 공산당에 무너지다”. **월간조선**.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ew.asp?ctcd=&nNewsNumb=201905100046>, 2025. 09. 05>.
- 연합뉴스(2009. 08. 07). “북, 무용가 최승희 업적소개 영상물 방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2801503?sid=100>, 2025. 03. 04>.
- 연합뉴스(2011. 11. 28). “北, 최승희 탄생 100주년 기념 창작극 공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5393485>, 2025. 04. 05>.
- 울산매일(2011. 11. 26). “무용가 최승희 선생 탄생 100주년”.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977>, 2025. 03. 04>.
- 유신모(2022. 05. 15). “북 주체사상 체계화 주도’ 양형섭 사망”.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205152236025>, 2025. 02. 03>.
- 윤인하(2025. 01. 05). “디올 모델까지 된 미모의 무용수...돌연 공연 취소되고있다는데 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1209966>, 2026. 03. 03>.
- 이계환(2010. 01. 14). “北, 신임 안동춘 문화상 임명”. **통일뉴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281>, 2026. 03. 04>.
- 이계환(2011. 11. 26.). “평양에서 최승희 생일 100돌 기념 다양한 행사 열려”. **통일뉴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744>, 2025. 04. 05>.
- 이제훈(2025. 12. 06). “북 무용가 최승희 공연’ 남 저작권 등록”.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252044.html, 2026. 03. 22>.
- 정병호(2011. 08). “고 정병호 교수 추모 특집 : 한국 근대무용의 선구자, 崔承禧의 예술과 생애”. **춤웹진**. <http://koreadance.kr/board/board_view.php?view_id=7&board_name=plan&page=62, 2025. 12. 22>.
- 차길진(2017. 04. 29). “[‘전설의 무희’ 최승희,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사상투쟁 제물로 파국적 운명… 사후 34년 만에 ‘열사릉’ 안장”.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170428002533>, 2026. 01. 24>.
- 켈리 응(2024. 05. 08). “‘김씨 일가 우상화’ 김기남 북한 전 선전선동비서 94세로 사망”. **BBC News**

-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60y84gmkzo>, 2025. 05. 05>.
- 통일뉴스(2003. 02. 10). “북·반동·문예인 복권 의미”.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54>, 2026. 03. 04>.
- 한겨레(2019. 10. 20). “북한 문예총 위원장에 김병훈씨”.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46198.html>, 2026. 03. 05>.
- 현윤경(2006. 09. 24). “〈사람들〉 한국 찾은 ‘인민배우’ 리미남”. 통일뉴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380>, 2026. 03. 03>.
- 황태훈(2009. 09. 17). “[무용]최승희 1997년 복권됐다”.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20730/7847554/1>, 2025. 11. 21>.
- 북한대학원대학교. “사도성의 이야기”. 20세기 북한예술문화사전. <<http://www.nks.ac.kr/Word/View.aspx?id=2200>, 2025. 11. 23>.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민문화공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6890>, 2025. 12. 23>.
- 북한대학원대학교. “최승희”. 20세기 북한예술문화사전. <<http://www.nks.ac.kr/Word/View.aspx?id=2165>, 2026. 01. 03>.
- 북한대학원대학교. “최승희무용연구소”. 20세기 북한예술문화사전. <<http://www.nks.ac.kr/Word/View.aspx?id=2162>, 2025. 12. 23>.
- 통일부. “주체 사상”.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pge/view.do;jsessionid=K8TRcA9aHohf_muHtC4yY2UdfX4v7n1LB9_gg2TW.ins22?menuId=PO001, 2026. 03. 04>.
-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일성주체사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0280>, 2026. 03. 02>.
- 한국학중앙연구원. “반도의 무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4353>, 2025. 11. 01>.
- 한국학중앙연구원. “신미리 애국열사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6571>, 2025. 12. 23>.
- 한국학중앙연구원. “유일사상체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1769>, 2026. 02. 14>.
- 한국학중앙연구원.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세계한민족문화대전. <<https://www.okpedia.kr/Contents/ContentsView?contentsId=GC95200882&localCode=jpn>, 2026. 03. 03>.
- 김일성(1994). **세기와 더불어 5**. 조선로동당출판사.
- 량홍일, 김성희, 김윤식, 리신일, 김영일, 김태룡, 리철준, 김선아(2015). **아버지의 유산**. 평양출판사.
- 문성렬, 배윤희(2010). **조선사회과학학술집 547 민속학편 : 민속학연구논문집 11**. 사회과학출판사.
- 배윤희(2012). **태양의 품에서 영생하는 무용가**. 문학예술출판사.
- 로동신문(2011. 11. 25). 무용가 최승희생일 100돐기념 도서발행식 및 연구토론회 진행.
- 로동신문(2011. 11. 25). 무용가 최승희선생의 묘소에 화환 진정.

- 로동신문(2011. 11. 27). 무용가 최승희생일 100돐기념 련환모임.
- 문학신문(2011. 11. 25). 무용가 최승희생일 100돐기념.
- 민족문화유산(2007년 제2호). 〈인물소개〉 현대조선민족무용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최승희.
- 민주조선(2014. 05. 09). 무용예술가 최승희.
- 민주조선(2011. 11. 25). 무용가 최승희 생일 100돐기념 도서발행식 및 연구토론회 진행.
- 민주조선(2011. 11. 25). 무용가 최승희 선생의 묘소에 화환 진정.
- 예술교육(2009년 제3호). 조선민족무용과 최승희.
- 예술교육(2013년 제3호). (혁명설화)송가무용창작에 깃든 어머니의 손길.
- 조선예술(2012년 제4호). 무용가 최승희선생 생일 100돐기념 행사진행.
- 조선예술(2012년 제4호). 절세의 위인들의 품속에서 빛나는 삶을 누린 무용가.
- 조선예술(2013년 제1호). 현대초기 민족무용을 현대화하기 위한 예술창조활동.
- 조선예술(2018년 제1호). 국보로 태어난 《조선민족무용기본》.
- 통일신보(2011. 12. 03). 무용가 최승희 생일 100돐기념 도서발행식 및 연구토론회 진행.
- 통일신보(2011. 12. 03). 무용가 최승희 생일 100돐기념 련환모임.
- 통일신보(2018. 12. 22). 민족무용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최승희 춤체.
- 발행처 및 발행년 불명. (조선기록) 뚜렷한 자욱, 빛나는 삶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 [DVD, 15분 11초].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 在日本朝鮮文学芸術家同盟(2021. 04. 29). “민족무용가 최승희”. <<https://munedong.com/2021-4-29-2/>, 2026. 01. 23>.
- 在日本朝鮮文学芸術家同盟-文芸同 munedong. “崔承禧 최승희 동방의 무희”. <https://www.youtube.com/watch?v=S2_esSoRKYs, 2025. 11. 03>.

논문투고일 2026. 02. 15.
 심사일 2026. 02. 19.
 심사완료일 2026. 03. 17.

Aspects of Choi Seung-hee' Rehabilit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tics in North Korea

Park, Eun-Hye

Guest Professor, Department of Dance Theory, School of Danc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atterns of rehabilitation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Choi Seung-hee, who had been purged in North Korea. To this end, an analysis of literature and visual materials was conducted. Since Kim Il-sung's re-mention of Choi Seung-hee in his memoirs in 1994, she has been rehabilitated through continuous and multifaceted channels, extending to the current Kim Jong-un regime. Furthermore, through this process, the North Korean regime continued to mobilize Choi Seung-hee for political purposes even after her death. Ultimately,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as it provides a broad overview of the pivotal moments in Choi's rehabilitation while fundamentally exploring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dance and politics through the specific case of North Korea.

Keywords: Choi Seung-hee (최승희), Rehabilitation (복권), North Korean Dance (북한 무용), Joseon Dance Basic(조선민족무용기본), Dance and Politics (춤과 정치).